

언양읍성 체성(體城)의 단면 형상에 관한 연구

韓 三 建

(蔚山大學校 建築學部 助教授)

1. 연구의 배경

언양읍성(彦陽邑城)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 성은 조선시대 읍성의 대부분이 평지에 축조되는 것과 같이 평지에 정방형에 가깝도록 축조된 읍성이다¹⁾. 그러나 이곳은 홍주읍성이나 낙안읍성 등 다른 읍성과 달리 성곽 내부의 지형에 고저차가 거의 없는 평지라는 점에서 구별이 된다. 또한 이곳은 1966년에 국가 사적 153호로 지정될 정도로 체성 하부 구조물의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곳이다.

그러나 체성(體城)의 상부구조물은 물론, 성지 동남우의 상당부분이 일제식민지 시대 이후 계속 훼손 되어왔으며, 더욱이 1990년 5월 24일에는 읍성의 동·서문지 축을 경계로 한 체성의 남쪽 절반이 보존지구에서 제외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유구 훼손은 1996년부터 시작되는 보존지구내 성벽정비의 계기가 되었다. 그렇지만, 이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²⁾은 시·발굴조사도 없이 단 한번의 지표조사결과³⁾만을 가지고

시행되어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게 되었다.

즉,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진행된 언양읍성 정비사업의 결과를 보면, 체성이 일률적으로 6m의 폭을 가진 완전한 내외 협축(夾築) 형태가 된 것이다.(그림1, 3) 정비사업 후 드러난 체성의 문제점은 ①내외 협축인 점 ②기저부와 상단부가 동일한 6m 폭인 점 ③석재만을 사용한 정비라는 점 ④외벽 면석의 석축 수법상의 문제 등이다.

이와 같이 복원정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나 그 내용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보다 면밀한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림 1 정비후의 언양읍성 체성

1) 울산군, 언양읍성지표조사보고서, p.10, 1991

2) 1996년부터 2005년까지의 10개년 사업으로 성곽정비 710m(전체 성곽의 약 절반)와 사유지매입 5000㎡에 총 사업비 61억 570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 이 가운데 70%는 국비이며 나머지는 시비이다.

3) 울산군, 상계보고서, 1991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2-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언양읍성 체성 단면형상의 원형이, '정비'사업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협축이 있는지, 아니면 내탁을 가지는 편축이었는지의 여부를 밝히는데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체성의 단면형상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문루, 웅성, 해자, 적대 및 여장과 같은 전반적인 체성의 구조에 대한 고찰은 별도의 논문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언양읍성의 올바른 복원과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활용에 의의를 두고자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나라 성곽 연구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2. 연구의 방법

본 논문은 문헌자료, 도면 및 사진자료를 분석하고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연구되었다.

먼저, 『왕조실록(王朝實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여지도서(輿地圖書)』 및 『언양읍지』류와 같은 고문헌을 분석하여, 조선초기의 체성 축조수법은 물론 읍성 축조의 핵심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방 수령을 역임한 당대 지식인의 읍성에 대한 생각을 확인해 보았다. 그리고, 고지도와 지적도 및 토지대장⁴⁾과 더불어 관련 사진자료들을 분석하였다. 또, 최근에 이루어진 울산시와 울주군에 의한 시·발굴조사보고서의 분석 및 수 차례에 걸친 이들 시·발굴 현장답사를 비롯한 현지조사를 병행하였다.

3. 언양읍성의 축성

3-1. 토성

4 당시의 토지조사는 소유권, 가격, 형모의 조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유권조사는 각 필지별 조사, 측량, 제도 등으로 이루어졌고, 형모조사로는 지형 측량이 이루어졌다.(조선토지조사사업보고서, p.2-3. 1918) 따라서, 지적도와 토지대장은 관한 자료로서 사정시점부터 현재까지 토지의 경계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도면자료가 된다고 하겠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 의하면 “읍에는 토성이 있는데 둘레는 157보(步)이고 우물이 2개소 있다”⁵⁾고 기록되어 있다. 『경상도속찬지리지(慶尙道續纂地理志)』 언양현조에는 “읍성은 홍무(洪武) 경오년(庚午年, 1390년)에 토성으로 축조하였으며, 둘레가 1,427척, 높이 8척이며 군창(軍倉)이 있고 웅덩이 4곳과 우물 2곳이 있는데 겨울이나 여름에도 마르지 않는다”⁶⁾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언양현 성곽조와 『여지도서(輿地圖書)』 언양현 성지 조에도 역시 “읍성은 토성으로 둘레가 1,498척이며, 높이가 8척이고 내부에 우물이 2곳 있다”⁷⁾고 적고 있다.

다만, 이러한 기록 및 여말의 왜구침입에 대비한 다른 읍성의 축조 경향으로 볼 때 언양읍성이 토성으로 초축된 시기는 1390년으로 보는데 문제가 없다고 본다. 또, 최근의 발굴조사⁸⁾ 결과를 두고 보더라도 현재의 읍성 남문지 유구 하부에서 초축(初築)된 토성의 흔적으로 보이는 유구 및 우물이 출토되고 있다.

3-2. 석성

언양읍성의 석성 개축 시기는 연산군 6년(1500년)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완성된 시기로 보아야 하며, 실제로 석성 개축 공사는 훨씬 오랜 기간동안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당시는 왜인 상경로를 비롯하여 연해부의 거의 모든 곳을 포함하는 전국적인 규모의 축성⁹⁾이 이루어졌고, 따라서 각 읍성은 해당 읍민과 주변 수 곳의 읍민의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런 당시의 실정을 감안한다면 언양

5 세종실록지리지 권50 언양현조 “邑土城 周回一百五十七步 內有井二”

6 『경상도속찬지리지』 언양현조 “邑城 洪武庚午土築 周廻一千四百二十七尺 高八尺 有軍倉 水坎四處 井二冬夏不渴”

7 『新增東國輿地勝覽』卷二十三 彦陽縣 城郭條, 『輿地圖書』 彦陽縣 城池條, “邑城 土築 周一千四百九十八尺 高八尺 內有二井”

8 동아대 박물관, 언양 동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정지구 내 발굴조사보고서, 2002. 8, p.32

9 차용걸, 고려말 조선전기 대외 관방사 연구, 충남대 박론, 1988.8, p.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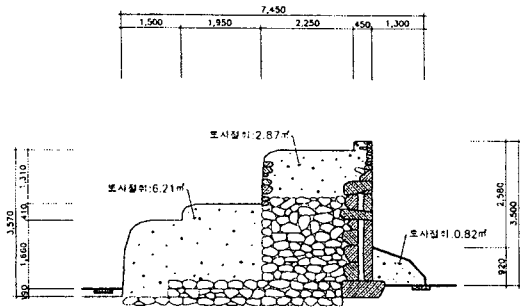


그림 2 현황도면(북문지 동측 치 부근)

읍성의 개축 공사에 소요된 시기는 수년에서 수십 년을 상회했을 것으로 쉽게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언양읍성에 대한 심정은 문종, 성종 대에 각각 실시되었는데, 문종 원년(1451년)에는 ‘추후 개축’¹⁰⁾으로 분류하고, 성종8년(1477년)에는 언양 등 13개 읍성을 우선 심정하게¹¹⁾ 하였다. 이러한 왕조실록의 내용으로 보아 성종 8년 이후 어느 시점에 언양읍성의 개축이 결정된 다음 연산군 6년(1500년)에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개축 후의 체성 규모는 여러 문헌에 동일하게 나타난다. 즉,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언양현 성곽조에는 “홍치(弘治) 경신년(庚申年)에 석축으로 고쳤으며, 둘레는 3,064척이고 높이는 13척이며 우물이 3곳 있다¹²⁾”라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여지도서(輿地圖書)』 언양현 성지조(城池條)에는 “홍치(弘治) 경신년(庚申年)에 현감 이담룡(李聃龍)이 석축으로 개축하였는데 둘레 3,064척, 높이 13척, 여첩(女堞)¹³⁾ 834이며 안에는 우물 4개소가 있다¹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상의 기록에 나타나 있는 서기 1500년에 석축으로 개축된 성이 현존하는 언양읍성이라고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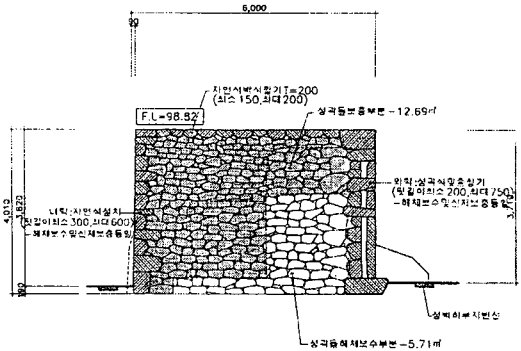


그림 3 계획도면(그림2와 같은 위치)

겠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용척도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2002년에 언양읍성을 시굴 조사한 동아대박물관은 영조척인 1자 31.21cm로 생각되는 척도로 환산하여 성벽의 길이를 1,125m, 높이를 약 4.1m¹⁵⁾ 정도라고 적고 있다. 그러나 언양읍성의 초축 시기와 가까운 세종에서 문종과 성종을 거쳐 연산군에 이르는 조선 초의 읍성 축조 기에는 포백척¹⁶⁾을 사용하였다¹⁷⁾는 기록이 있고, 또한 최근의 읍성 연구¹⁸⁾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에 비추어 당시의 용척에 대한 검토 없이 문헌기록의 척수를 미터법으로 환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4. 언양읍성의 체성 구조

4-1. 문헌자료 분석

언양읍성의 체성 구조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문헌자료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기 ‘연구의 방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왕조실록』과 ‘읍지’등의 고문헌을 바탕으로 고찰해 보았다.

10 차용길, 상계 학위논문, pp.81-82

11 차용길, 상계 학위논문, p.132

12 『新增東國輿地勝覽』卷二十三 彥陽縣 城郭條 “弘治庚申改石築 周三千六十四尺 高三十三尺 內有三井”

13 여장(女塙)이라고도 하는데 성가퀴를 말 함

14 『輿地圖書』彥陽縣 城池條 “弘治庚申 縣監李聃龍 改石築 周三千六十四尺 高三十三尺 女堞八百三十四堞 內有四井”

15 동아대박물관, 전게서, p.14

16 포백척은 베를 재는 자로 1자가 44.75cm(五體), 46.73cm(遵守) 등의 종류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각 지방에서는 이와 약간씩 차이가 있는 地尺이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17 성종실록 권225, 20년 2월 4일 壬辰, 하삼도의 축성기준에 관한 내용

18 김선범, 한삼진, 조선시대 읍성위곽의 용척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3권 2호, 1998. 4

조선 초의 읍성 축성 기에는 새롭게 축성되는 성과 고려 말의 토성을 개축하는 두 가지 경우가 많았다. 특히, 신축과 개축을 막론하고 대부분 석축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세종 20년에는 「축성신도(築城新圖)」가 반강(頒降)되는데, 그 주된 내용이 석축 읍성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축성신도의 내용은 “내면에 돌 16척을 메우고 위에는 계단을 만들되, 박석으로 퍼게 한 것”으로 보인다. 또 축성신도를 반강한 이유는 “대개 진흙으로만 오로지 쌓으면 쉽게 무너질 것을 염려한 것”¹⁹⁾이라고 한다.

실제로 성을 쌓을 때 돌과 흙을 운반하는 거리가 가까우면 10여 리에 멀면 30리나 되어 백성 수십 명을 사역시켜도 하루에 한 두 개를 운반할 수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세종대의 관리인 이보흙(李甫歙)은 석성(石城) 1척을 쌓는데 사람을 6, 7명까지 써도 1, 2년에 축조가 어렵고, 완성된 것도 잘 무너지며, 쌓아서 계단을 만들고 박석을 깔면 수비가 어렵고, 적이 한 두 개의 돌을 공격하면 내면의 잡석(雜石)은 저절로 무너지며, 그 위에 덮은 흙이 없기 때문에 한번만 비가 오면 물이 성기(城基)에 스며들어 곧 무너지게 된다고 주장했다.²⁰⁾

따라서 그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내면에 돌을 메워 반드시 넓이를 16척이나 하여 백성의 힘을 거듭 곤하게 한 뒤에야 성을 견고하게 함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라고 하면서 “외면의 6, 7척은 오로지 큰돌을 써서 쌓고, 내면의 7, 8척은 섞어서 흙으로 단단하게 쌓되, 다 쌓은 뒤에는 흙 2척을 덮게 하고 그 위에 때를 입히되, 안으로 향해 경사지게 하여 물이 쉽게 빠지게 하기를 도성의 제도과 같이 하면, 사람이 오르고 내리기에 편리하여 적을 제어하는 공을 이룰 것입니다”²¹⁾라고 하였다.

이어서 그는 “그렇게 하면 전일에 한 성을 쌓

는 공력을 가지고 두 세 성을 쌓을 수가 있으니, 나라를 이롭게 하고 백성을 편하게 하는 것이 한 두 가지로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대저 비가 흙에 들어가는 것이 한 두자(尺에) 불과하니, 돌성(石城) 위에 흙 2, 3척을 쌓아서 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 비록 백년을 지나더라도 반드시 무너지게 될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²²⁾라고 하였다.

더구나 그는 자신이 과거에 군위현 수령으로 있을 때 흙과 돌을 써서 쌓아서 9년 간 무너지지 않았던 영일성(迎日城)이 신도반강 후에 사토(沙土)를 버리고 박석을 깔았는데 하루아침의 비에 갑자기 무너진 것을 직접 보았다고 적고 있다²³⁾. 즉, 그는 오랜 세월 합리적인 축성법에 대해 고민한 결과를 왕에게 아뢰는 것이다.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성종 때가 되면 체성의 폭은 포백척(布帛尺) 15척으로 기준이 만들어진다²⁴⁾.

한편, 최근의 언양읍성 정비 사업 설계도면 가운데 현황도면(그림 2)을 보면 단면구조가 이보흙의 이러한 주장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도면에서 성 내부 쪽은 적심석(積心石)의 레벨이 낮고 흙이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이보흙과 같은 이는 당시 지방의 수령으로 실제로 근무하면서 읍성을 만들었거나 그것을 살펴보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과 같이 훼손되기 전 읍성의 원형을 실제로 보지도 못하고, 만들어 보지도 못한 우리 현대인들로서는 그의 주장이 시사하는 바에 주목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상과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하면 언양읍성의 체성은 역시 외부는 협축이나 내부는 기울기가 있는 내탁(內托)이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4-2. 고고학적 자료 분석

언양읍성에 대해서는 1991년에 지표조사가 실시된 적이 있고, 2002년 초와 6-7월에는 각각 체

19 차용경, 전개 학위논문, pp.109-113 재인용(국역왕조실록 CD롬, 세종실록 권 102, 25년 11월 3일 甲寅, 成均 注簿 李甫歙의 상소내용)

20 차용경, 상계학위논문 pp.109-113에서 발췌(국역 조선왕조실록 CD롬, 세종실록 권102, 25년 11월 3일 甲寅)

21 상기 이보흙의 상소

22 상기 이보흙의 상소

23 상기 이보흙의 상소

24 성종실록 권225, 20년 2월 4일 壬辰

성부와 4 대문지 등에 대한 시굴조사가 있었다.

먼저, 지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남쪽 성벽은 대체로 성내의 레벨이 바깥보다 높는데 남문지의 경우 그 수치는 2.08m²⁵⁾이다. 동쪽 성벽도 성내가 높는데 조사시점²⁶⁾으로부터 5m지점에서는 체성 폭이 5.05m, 성내가 0.55m 높다. 반대로 성내레벨이 성외보다 낮은 곳은 북쪽과 서쪽 성벽이다. 북쪽의 경우는 동에서부터 0.78m(224m지점), 0.92m(412m지점), 1.91m(542m지점)로 서쪽으로 갈수록 레벨이 낮아지고 있다. 같은 지점에서의 체성 폭은 각각 7.05m, 8.28m, 13.9m이다. 성내 레벨이 낮은 서쪽으로 갈수록 체성 폭이 넓어짐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성내 레벨이 낮은 서쪽 성벽의 경우도 665m지점에서는 체성 폭이 8.4m, 레벨 차가 0.9m이다. 서문지 남쪽 적대 부근인 908m지점에서는 체성 폭이 9.24m, 레벨 차가 1.05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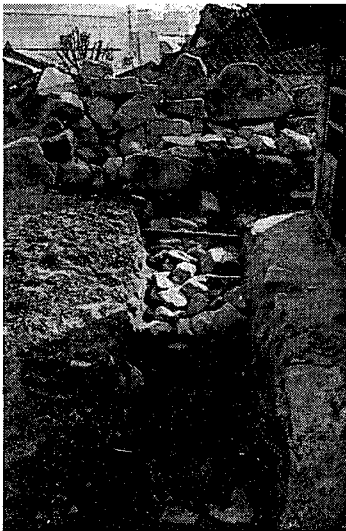


그림 4 남문지 서편 체성의 석재

두 번째로 남문지조사보고서를 보면, 남문지

체성에 대해서, "성 폭이 550cm 정도이고, 외벽 면석 뒷편 적심석은 폭 220cm정도로 장대석을 배치하여 면석이 무너져도 체성 자체는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내벽 쪽의 성벽은 인두대의 막돌이나 할석을 사용하고 내벽 면석 역시 주변 적심석과 마찬가지로 크기의 막돌이나 할석을 사용하여 비교적 조잡한 느낌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외벽의 면석과 대조를 이루었다"²⁷⁾고 하는 기술 내용에 주목하고자 한다.

한편, 남문지 웅성에 대해서는 같은 보고서에서 "내·외벽 석축수법으로 동일한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서, 내벽부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만든 체성과는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²⁸⁾라고 적고 있다. 웅성의 경우는 그 기능상 협축으로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만약 연양읍성의 체성이 협축이라고 가정한다면 위와 같이 웅성과 다른 내벽 구조를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연양읍성 남문지의 경우는 "처음부터 웅성과 체성이 동시에 축조되었다는 점에서 특징"²⁹⁾이 있는데, 동시에 쌓은 웅성과 체성의 내벽 구조만 다른 이유는 결국 내벽이 협축이 아닌 내탁일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2002년 초에 연양읍성의 체성부 여러 곳에서 실시된 시굴조사 내용(그림5)을 살펴보면, 체성의 구조는 '지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생토층에 막돌이나 자갈들을 한 두벌 깔아 다지고 그 위에 두께 30cm 전후의 평평한 장대석을 놓아 지대석(地臺石)으로 삼은 뒤 그 위에 기단석(基壇石)을 올려놓았는데 그 끝을 외벽 면석의 경우 80cm정도 안쪽에 놓아 지대석과는 계단상을 이루도록 하였다. 외벽 면석은 자연대석을 사용하고 지대석과는 수직하게 축조하였는데 기단석은 상단부의 성석들보다 대석으로 사용하고 있다. 성폭은 510cm정도이고, 외벽 면석 뒷편의 적심석은 폭 220cm정도로 장대석을 배치하여 면석이 무너져도 체성 자체는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내벽 쪽은 인두대의

25 울산군, 전계보고서, p.70의 도면에서 계산

26 울산군의 지표조사보고서에서는 동문지 북쪽 적대로부터 남쪽으로 30m지점을 기점으로 북쪽, 서쪽의 순으로 구간별 거리를 나타내고 있는데, '5m'란 이 위치에서부터 북으로 5m라는 의미이다(이하 동).

27 동아대박물관, 전계서, p.20

28 동아대박물관, 상계서, pp.25-26

29 동아대박물관, 상계서, P.26

막돌이나 할석(割石)을 사용하여 외벽 면석과는 대조를 이루었다³⁰⁾고 밝혀졌다.

이 기술 내용과 그림 4, 5를 보면 면석과 적심석에 층위가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상기 이보흠이 주장한 방식과 유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시굴조사 장소에 따라서는 적심석의 상부에 상당한 두께의 흙이 덮혀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은 다음의 현상분석에서도 언급하겠지만, 농사를 위해서 일부러 옮겨온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읍성의 훼손과정이란 토석이 없어져 가는 것이지 채워져 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고고학적 조사방법에서는 이 같은 체성 상부의 흙에 대해서는 부식토로 보고 무시한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조선시대의 읍성 축조에 있어서 실제로 흙과 돌이 함께 사용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웠음은 위의 문헌 분석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 적심석이 노출되는 부분만을 성벽의 폭으로 판단하는 고고학적 해석은 위의 문헌 내용과 완전히 배치되기 때문이다.

그림5는 위쪽 그림이 언양읍성 서쪽 성벽의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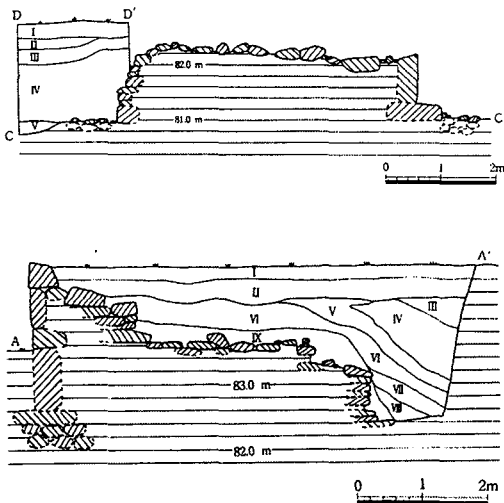


그림 5 언양읍성체성 단면도(상은 서남, 하는 북서 지구, 출전:동아대중간보고자료)

30 동아대박물관, 언양읍성 시굴조사개요(중간보고자료) 2002. 10. 10 p.5



그림 6 읍성 적대 위의 가옥

문 남쪽 적대부근도면이며, 아래쪽 그림은 북쪽 성벽의 서쪽 성우에 가까운 부분이다. 이 도면을 보면, 성벽의 단면을 발굴할 때 적심석이 있는 부분만을 노출시키고 뒤쪽의 흙으로 채워진 부분은 발굴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체성 임이 분명한 부분에 대하여 적심석이 노출되는 일부만 조사하는 것은 체성의 단면 구조를 밝히는데 걸림돌이 되며, 내탁으로 짐작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제시가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런 반면, 이 도면을 보더라도 체성에 흙이 덮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3. 현상 분석

언양읍성 체성의 원형에 대해서는 수 차례³¹⁾에 걸쳐 이곳에 오래 거주한 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았으나 만족할 성과는 없었다. 다만 현재의 북문지 좌우 측 성벽 등을 중심으로



그림 7 북쪽 체성의 내부(검정선이 성벽)

31 동부리 310번지의 할머니(2002. 9. 8), 북문지 옆(동부리 298-2번지)에 거주하던 할아버지(2000. 10) 등

현상을 살펴보면 계단식으로 개간하여 밭농사를 짓고 있고, 체성 위에 민가(그림 6)가 들어선 경우도 있다. 특히, 농지로 사용되는 경우는 모두 밭이며 체성의 축선에 따라 옆으로 길고 폭이 좁은 것이 특징이다(그림 7, 9). 이처럼 농지로 이용된 것은 오래된 일이며 과거의 사진이나, 지표조사 보고서, 주민들의 증언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이곳이 협축에다 박석을 포설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면 다음의 몇 가지 설명이 불가능해진다. 첫째, 폭이 불과 2m가 채 되지 않는 소규모의 밭을 일구기 위해 사람의 힘으로 현재 확인되는 흙을, 그것도 계단식으로 가져다 부었는지, 둘째, 협축 이라면 평지로 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데 밭은 왜 계단식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셋째 이같이 작은 밭을 일구기 위해 이곳에 있던 적심석을 모두 옮겨 냈는지 하는 점이다. 다음 항에서 언급하겠지만 이들 체성은 모두 1932년과 1933년, 그리고 1945년에 국유지로 등록³²⁾이 되었다. 이미 1912년에 이곳의 토지에 대한 사정이 이루어졌는데 자기 땅도 아닌 곳을 불과 얼마간의 작물을 경작하기 위해 이런 노력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

이와 같이 현재 체성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이용 양태와 현상을 살펴보더라도 언양읍성의 체성은 내부로 내탁이 있었으며 적심석의 상부에는 흙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현재의 복원정비공사의 설계를 담당한 우리건축사사무소의 시공도면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그림 2). 그림과 같이 체성의 단면은 높이가 다른 2-3의 커를 이루는 적심석과 그 위에 채워진 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모양이 계단상인 것은 본래의 내탁을 농사를 위해 계단 상으로 삭평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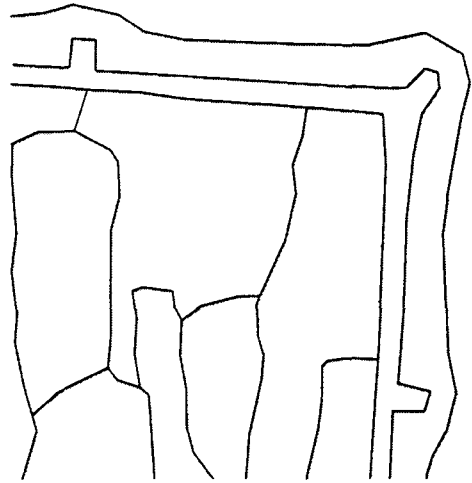


그림 8 언양읍성지적도(동북우, 19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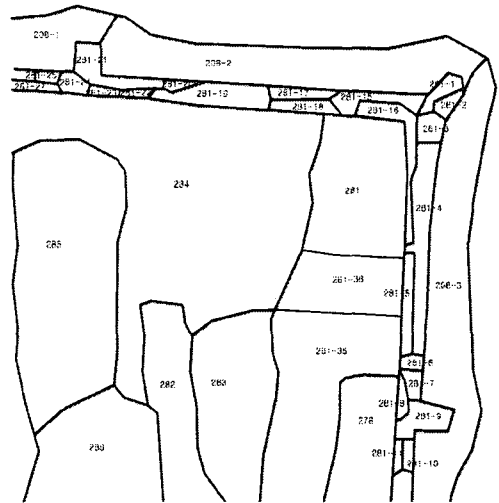


그림 9 언양읍성 지적도(현재)

4-4. 지적도 분석³³⁾

현재 사용중인 지적도(그림 8, 9)의 원형은 일제시대 초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읍성이 소재한 현 언양읍 동부리의 토지는 1912년 5월 30일에 사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시점 이후 인위적인 합병이나 분할 이외에는 토지 경계에 변화가

32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일일이 대조하였다. 그 결과 1932. 4. 11자로 남문지가 등록이 되었으며, 1933. 3. 25자로는 동서문을 경계로 한 남쪽의 체성 전부와 북쪽 성벽 가운데 335-1번지와 335-2번지가 등록되었으며, 나머지 전부는 1945.3.20자로 지목이 설정된 것이다. 이처럼 과거의 읍성 체성이 토지사정시기 보다 시기적으로 늦게 등록되는 경우는 경주, 홍성 등을 분석한 필자의 기존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어서 일반적인 현상임을 알 수 있다.

33 한삼건은 그의 학위논문인 <한국의 읍성공간 변용에 관한 연구(일본어), 京都대학박론, 1994. 3> 및 울산읍성, 홍주읍성 등을 사례로 한 일련의 연구(각각 일본건축학회와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등에 발표)에서 지적도를 사용하여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없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접 토지의 침탈이나 월경(越境)같은 행위는 항상 지적 측량에 의해서 다시 바로잡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사정 당시 체성 부분이 완전하게 삭평되어 경계가 없어지거나, 지적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원래의 체성 경계가 현재의 지적도에 투영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런 가정 하에 체성을 살펴보면, 그 폭이 일정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체성에 위치한 가옥 및 대지경계를 답사한 결과도 지적도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일제초기인 1923-1927년 사이에 있었던 읍성 남쪽 남천의 호안 공사³⁴⁾를 위해 체성의 석재가 반출된 동남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체성 부분의 지적 경계선이 성벽 축에 따라 가운데 한 줄이 더 생기는 현상도 주목이 된다.(그림 9) 이 현상은 해방 전에는 단 2필지가 확인되지만 해방 후에는 크게 늘어난다. 즉, 위의 토지현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선은 결국 체성에 무엇인가의 이유에 의한 경계가 생겼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곧 이보흠의 상소와 계단식 경작지, 체성 정비 시공도면 등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체성의 단면구조가 내탁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된다.

지적도상의 체성폭 범위 6.2m - 12.3m는 앞에서 언급한 '지표조사보고서'의 그것과는 근사한 수치이다. 이와 같이 지적도상의 체성 폭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첫째, 성 안팎의 레벨 차, 둘째, 축성이후부터 토지사정이 처음으로 시행되었던 1912년 사이에 일어난 경계변화의 가능성에서 찾아진다.

이상의 고찰 결과, 언양읍성 체성은 그림 10과 같은 단면형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고 두꺼운 실선은 체성 기저부 폭을 포백척 15척으로 본 기준선이다. 먼저, 그림10의 기저부 폭 7.635m는 언양읍성 체성의 실제 측량길이 1559.7m³⁵⁾를 문헌기록의 3,064척으로 나눈 값인 50.9cm에 다시 문헌상의 체성 폭 15척을 곱한

값이다.

또, ㉑㉒㉓㉔㉕의 각 점은 '지표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각각 61m(동쪽성벽), 412m(북쪽성벽), 542m(북쪽성벽), 665m(서쪽성벽), 908m(서쪽성벽) 지점의 체성 폭과 성 안쪽 지면 레벨의 교점을 가지고 표시한 것이다³⁶⁾. 이 그림을 보면, 대체로 이들 5개 지점과 연결한 추정 내탁선이 기준선과 유사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㉑와 ㉕지점과 연결되는 선은 추정단면의 기준선과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체성 폭은 성내·외의 레벨 차에 따라 ①성내가 높은 남쪽이나 동쪽은 체성 폭이 기준보다 좁아지거나 내탁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며, ② 서쪽과 북쪽 체성처럼 성 안쪽의 레벨이 성 바깥쪽 보다 낮을 경우는 체성 폭이 넓어져서 내탁의 기울기가 결정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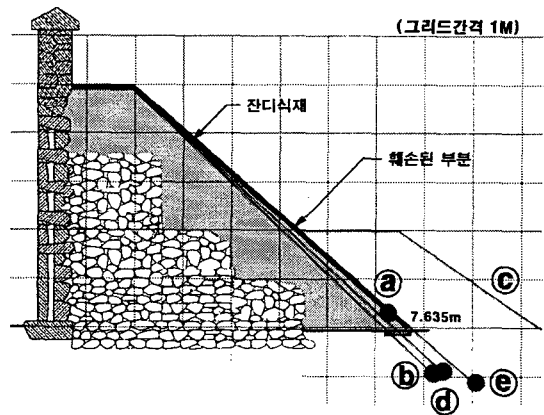


그림 10 언양읍성 체성 단면 추정도

4-5. 용척(用尺)

앞에서 언양읍성의 사용 용척은 포백척이었음을 별도의 연구에서 밝힌 바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와 함께 위의 설명에서 언양읍성 개축시기인 연산군시대보다 앞서는 성종시대의 기록에 읍성은 포백척을 기본으로 하여 15척의 폭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음도 언급하였다. 따라서 언

34 언양읍성발간추진위원회, 언양읍지, 2001, p.909

35 동아대, 전계 보고서, P.15

36 단, ㉑점은 그림의 사이즈 때문에 보이는 그림 범위 밖에 있다. 그러나 내탁을 나타내는 선은 이 점과 연결되어 있다.

양읍성의 성곽복원과 수리와 같은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영조척이나 그 밖의 용척이 아닌 포백척이 기준용척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언급한 언양읍성 성벽 실제측량길이 1559.7m에서 찾아낸 값인 1척 약 50.9cm는 포백척의 그것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용척에 비해서 가장 근사한 값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만 놓고 본다면 이 값이 언양읍성의 '지척(地尺)'에 가까운 값으로 추정된다.

또, 잔존 유구의 최고 높이는 북측성벽의 적대에서 4.6m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기록상의 높이 13척으로 나누면 1척은 약 35.4cm 가 된다. 이 값은 기록상의 성벽 높이가 어느 지점을 기준으로 했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지며, 현존 적대의 높이가 축성 당시의 그것 보다 낮아졌을 수도 있으므로 역시 언양 읍성 축성 당시의 용척은 포백척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이 고찰한 결과 언양읍성의 석축성 공사는 성종8년(1477년) 이후의 시점에 시작되어 연산군 6년(1500년)에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시·발굴 조사결과와 조선 초의 축성수법, 토지이용 현황, 그리고 지적도에서의 확인을 토대로 할 때 첫째, 체성의 단면 형상은 현 단계에서는 내벽이 안쪽으로 기울어진 내탁을 채용한 것을 의심할 다른 증거가 보이지 않으며, 그 구조는 바깥쪽으로 대석을 한 켠 쌓고, 그 내부에 인두대의 적심석을 채웠으며 내벽 쪽의 바깥 면과 적심석 상부에는 흙을 채워서 때를 입혔을 것으로 판단한다.

둘째, 체성 기저부 폭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이는 지형적인 문제, 토지사정 이전의 토지경계 변화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연구결과, 체성 폭의 기준은 문헌에서 나타나는 포백척 15척을 기준 한 값으로 볼 수 있었다. 이 경우 언양읍성의 체성 기준 폭은 763.5cm로 추정되며, 성 안팎의 레벨 차에 따른 내탁 기울기도 대체로 기준단면의 기울기에 가깝게 나타났다.

참고문헌

1. 국역 왕조실록(CD롬)
2. 慶尙道續纂地理志
3. 新增東國輿地勝覽
4. 輿地圖書
5. 彥陽邑誌(1914, 1929)
6. 손영식, 한국 성곽의 연구, 문화재관리국, 1987
7. 차용걸, 고려말 조선전기 대외 관방사 연구, 충남대 박론, 1988.8
8. 은하건축사사무소, 언양읍성지표조사보고서, 울산군, 1991
9. 한삼건, 한국 읍성의 변용에 관한 연구, 京都대 박론, 1994.3
10. 심정보, 한국읍성의 연구, 학연문화사, 1995
11. 김선범, 한삼건, 조선시대 읍성위곽의 용척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3권 2호, 1998. 4
12. 언양읍지 발간추진위원회, 언양읍지, 2001
13. 울주군지 편찬위원회, 울주군지, 2002
14. 동아대박물관, 언양 동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정지구 내 시굴조사보고서, 2002. 8

Study on the Section type of old city wall in Eunyang Eupsung

Han, Sam Geon
(Assistant Professor, University of Ulsan)

Abstract

Eunyang Eupsung is located in Ulsan metropolitan city.

This study is identified the sectional shape of City wall.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outer wall in the sectional shape of City wall was 'Hyupchuk', but the inside wall was 'Naetak'. In other words, The inside wall has sloping shape, which was filled with stones and covered with soil and the lawn grass.